

기고

선진화된 집회 문화, 공감받는 집회의 지름길

오 승 식 보성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사



우리나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집회 시위를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3.1운동이 그랬고 5.18민주화 항쟁과 촛불집회가 그러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와 제한의 대상이었던 집회 시위가 기본적인 권리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으로 인식되어 집회 시위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선진화된 집회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지는 것이 '대화경찰'의 등장인데, 주요 역할은 집회 시위 주최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화경찰'이라는 명칭과 다르게 상호간의 대화보다는 주로 경찰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집회 시위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발전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불법 집회 시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폭력·손괴·절도 등 강력범죄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소음과 교통불편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장기간의 집회나 시위 소음에 고통받는 일반국민이 집회 주최측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요즘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에 대해 그 집회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회 개최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에 대한 소음 제한규정이 존재하고 도로교통법과 형법 상 교통과 통행의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법과 절차에 규정할 수 없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현행법 기조로 인해 주최측과 일반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정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법과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의 준법정신이 집회 시위의 당위성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칼럼

새 학년 새 출발 교육을 잘하자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3월은 3·1절 104주년 기념행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임춘이 지나고 새 봄이 시작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달이다.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2023학년도 새 학년 새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새 학년은 새로 입학한 1학년과 진급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직원들은 인사 발령에 의해 전일한 교직원도 있으며, 학교 시설도 겨울방학 동안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제 입학한 학생들이나 입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은 새 학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새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였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교권을 가진 부모와 교권을 위임받은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며 가르치고 도와주는 활동이다. 교육에 성공하려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자녀와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의 할 일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새 학년 교육을 시작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은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와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과 꿈을 품고 시작되고 있다. 지난 학년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점을 가지고 보람찬 공부를 하겠다는 것과 학교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에 의해 더욱 비전 있는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마음이 새로운 마음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물적인 환경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으니 새 교실이며 새 책이며 새로운 학용품을 접하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새 마음은 잘하겠다는 마음인데 막연한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여 잘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 시작할 때는 앞으로 진행될 일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계획과 물적인 준비물이다.

새 학년은 일 년간 계획이 필요하고 새 학기는 6개월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새 학년은 새로운 인적 물적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태어

날 때 혼자 태어났지만, 서로 만남으로 알게 되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며 살고 있다. 만남에는 기대가 따른다. 인적 만남의 기대는 새 학년이 되어 만나게 되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과 만남이며 학생들은 새로 만난 친구들과 만남이다. 이 만남은 서로 자기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 친근감이 길러져야 하는데 맨 먼저 할 일은 상호 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하며 이름 기억은 빠를수록 좋다.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충분히 해야 하며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는 곳,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친구를 알아두면 쉽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름표를 차는 것도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물적 환경과의 만남인데 새롭게 바뀐 학교 교실과 시설의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선행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의혀 가야 한다. 인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인간관계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며 물적인 환경은 부정적 환경으로 고장 난 것은 고치고 바로잡고 없어야 한다.

새 학년 새 학기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래퍼(rapport)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는 가정에서의 교권이 담임교사에게 전수되었음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는 친근감을 길러야 할 것이다. 새 학년 교육이 성공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 학년에서 담임교사는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는 즐거운 교실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식정보의 주입보다는 교과 학습의 학습 방법을 알게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지도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달리기할 때 출발점 고르기를 하여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시킨다. 교육도 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여 학년 초부터 출발점 고르기를 철저히 하여 부진자가 생기지 않는 수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시작할 때 교육을 잘 수 있는 여건 조성고 긍정적 생각이 꾸준한 행동으로 실천되어, 2023학년도 교육은 시행착오 없는 성공한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보이스피싱 신분증 유출! 이렇게 대처하세요!

기고

이 인 환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신분증이 유출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 financial informaitn network)를 이용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메인 홈페이지 → 소비자보호(피해예방·구제금융교육)→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등록 신청을 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한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 많은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2차피해를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단, 최초 등록한 방법과 같은 경로로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의 신규계좌 개설 등도 제한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일단 피해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재산적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OO 은행 고객님의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휴대전화로 받아봤을 법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과거 대출을 해준다는 수법에서 진화하여,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라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오래된 구전이 있다. 어떠한 이유든 돈을 요구하는 말은 우선 의심을 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사례는 없을 것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도 순간의 선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이나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